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함경북도 경성일대에서 활동하시던 나날에 쌓으신 업적

교수 박사 공영숙

1. 서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혁명전사의 제일가는 임무로, 본분으로 여기시고 해방후에도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수령님의 새 민주조선건설로선을 받드시고 수령님과 함께 전국각지의 공장과 농촌, 어촌, 학교에로 씬없이 발걸음을 옮기시였으며 때로는 수령님께서 현지도하실 단위들에 먼저 나가시여 그곳 실태를 료해하기도 하시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292페이지)

주체36(1947)년 함경북도에 내려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서 공장과 농어촌 등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주체50(1961)년 9월 어느날 학생들에게 우리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받들어어나가는 길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으시였다고, 지금도 어머님과 함께 1947년 가을 경성에 갔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병치료를 뒤로 미루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에 대하여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이 글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주체36(1947)년 가을 함경북도 경성일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면서 쌓으신 업적에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다.

2. 본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함경북도 경성으로 가시게 되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입은 어혈로 몹시 불편해하시기때문에 온천치료를 받아보라고 여러번 교시하시였다.

그때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밤낮이 따로 없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집을 떠나겠는가 하고 하면서 사양하시였다.

첫 인민경제계획이 수행되던 그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사업을 두고 몹시 걱정하고계시였다.

주체36(1947)년 1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를 받은 후에도 함경북도에서는 지방주의와 가족주의, 관료주의에 물젖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하여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적지 않은 편향이 나타나고있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함경북도의 사업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해 9월에 또 다시 함경북도안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기로 계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키며 수령님의 사업을 충직하게 보좌해드리는데를 혁명전사의 제일가는 본분으로 새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함경북도를 현지도하시실 계획이라는것을 아시고 온천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하시며 함경북도로 떠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언제인가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님께서 그때 함경북도에 먼저 내려가신것은 병치료보다도 그곳 실정을 알아보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무 불편이 없이 현지도를 하실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6(1947)년 8월 28일 경성에 도착하시여 이곳에서 활동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매일같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을 만나시여 군안의 실태를 료해하시였으며 경성일대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어촌들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경성일대에서 활동하시면서 쌓으신 업적은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와 립장으로 수령님의 건국위업을 적극 받들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와 립장은 김정숙동지의 혁명가적품모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성일대에서 활동하시는 나날 경성요업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찾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루빨리 개선하며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당시 경성요업공장은 종업원들중 녀성로력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기술자는 겨우 2명밖에 없었다. 공장의 기계설비는 보잘것 없었고 노동자들은 한심한 작업조건에서 힘겹게 일하고있었다. 원료직장만 보아도 온통 먼지에 휩싸여있었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 어둡침침한데다가 파쇄기와 분쇄기가 돌아가는 소음으로 말도 가려들을수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산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바꿀수 없다고 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이 교시를 언제나 명심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공장에서는 한달에 10만개의 사발을 생산하게 되어있는 계획을 12만개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해하면서 그 질이 낮았지만 그런 그릇들도 상점에 내놓기 바쁘게 잘 팔린다고 하여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도자기의 질을 높이지 못한것은 일군들과 노동자들속에 남아있는 고용살이근성,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뿌리빼지 못한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자기를 더 많이 생산하면서도 그 질을 높이자면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 기능공들이 인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며 도자기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수산부문에서 협동경영형태를 조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적극 받들어나가시였다.

해방후 노동자, 농민들에 비하여 령세어민들의 생활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령세어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민들을 협동경리에 망라시키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어촌단위로 수산생산반이 조직되었으며 일정한 경험을 쌓은 다음 점차 수산합작사를 조직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이에 따라 경성군에서도 령세어민들로 수산생산반이 조직운영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성일대에서 활동하시던 나날 온대진리의 집삼마을을 찾으시여 배가 없는 열한집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배와 그물을 장만하여가지고 수산생산반을 운영하고있다는것과 이들이 개인어민들보다 고기도 더 많이 잡고 생활도 편이게 되었다는것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곳 어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세어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자면 수산합작사를 많이 조직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이곳에 조직된 수산생산반은 바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수산합작사를 조직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을 실물로 보여주는 귀중한 새싹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동경리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령세어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넉넉히 먹이기 위해서도 수산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함경북도 안에서도 생활이 제일 어려운 어촌실태를 하나 더 료해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염분진 바다가마일에 나가시여 어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직 배와 어구가 없는 어민들이 그것을 배임자에게서 빌려 물고기를 잡아 그 값을 물고 나머지를 나누어가지다보니 생활이 편이지 못하고있는 형편을 헤아려보시고 어로작업을 공동으로 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고 생활이 개선된 집삼마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염분진마을이 수산합작사를 조직하는 사업에서 시범이 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알려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령세어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개선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수산합작사를 조직하여야 한다고, 수산합작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서 지난날 누구보다도 멀리와 천대를 받아오던 사람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그들을 일깨워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염분진의 어민들은 수산합작사조직을 다그치고 수산물생산량을 늘여 생활이 훨씬 편이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함경북도의 일군들속에서 지방주의, 자유주의, 관료주의를 뿌리빼고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 1월 북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제19차 상무위원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함경북도일군들속에 지방주의, 가족주의 경향이 있고 당의 로선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이 서있지 않은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제멋대로 일하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없앨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런데 당시 함경북도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인민들의 리익을 해치는 일이 공공연히 진행되고있었다. 그것이 바로 《호조미운동》이였다.

《호조미운동》은 로동자들에게 식량을 보탬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거두어들이는 《운동》이였다.

면에서는 군에서 내리먹인 지표를 리들에 할당하고 농호별로 분담된 쌀을 의무적으로 받아내고있을뿐아니라 쌀을 내지 않는다고 농민들의 고간을 뒤지며 쌀을 털어내는 것과 같은 행동까지 하고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통치시기 경찰들이나 악질적인 반동관료배들이 하던짓과 다름이 없는것으로서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 해독행위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예리한 정치적안목으로 당의 의도와 전혀 배치되게 진행되는 《호조미운동》의 본질을 즉시에 식별해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호조미운동》은 농민들속에서 자원적으로 진행되는 애국미헌납운동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함경북도에서 당중앙의 결정지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하는 지방주의, 자유주의적경향의 구체적표현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집행할 때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잘 따져보고 집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위원회가 로동자들에게 식량을 원만히 해결해주자면 농민들에게 없는 쌀을 내라고 억지로 내려먹일것이 아니라 땅을 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식량증산으로 보답하자고 정치사업도 하고 군중을 동원하여 퇴비 같은것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 농민들이 한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서 일군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잔재부터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하며 우리 당의 정책을 진심으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사실 그때 진행되던 《호조미운동》을 놓고 누구도 그것이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당과 인민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해독행위로 된다는것을 꿰뚫어보지 못하였으며 엄중하게는 당중앙의 지시도 안중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함경북도의 뿌리깊은 지방할거주의적경향의 표현이라는데 대해서는 포착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리고 일제통치시기 관료배들의 행위그대로 인민들을 다스리려는 일군들의 작풍이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얼마나 큰 해독적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하여 당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제멋대로 사업을 조직진행하는 지방주의, 자유주의적경향의 엄중성과 로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밑에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반인민적인 행위의 본질을 순간에 꿰뚫어보시고 실상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밤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농촌으로 나가시였으며 즉시에 중지시키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호조미운동》의 엄중한 후과가 제때에 가서지게 되였으며 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일해나가는 인민의 참다운 총복으로서의 자세와 립장을 지녀야 한다는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였다.

이처럼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함경북도일군들속에서 나타난 지방주의, 자유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당중앙의 결정,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강한 혁명적규율을 세워나가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경성일대에서 활동하시면서 쌓으신 업적은 다음으로 녀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녀성들이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건국사업에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은 해방후 녀성동맹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녀맹일군들이 사업방향을 당의 의도에 맞게 정하고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5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녀성동맹의 금후 과업에 대하여》에서 녀맹조직들에서는 광범한 녀성들을 녀맹조직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건국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런데 청진시녀맹에서는 옷기관일군들의 《지시》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간부들에 대한 역두환영, 환영연회 등을 맡아하고있었으며 함경북도녀맹의 일부 일군들은 아래조직들에 결정서나 만들어 내려보내는것으로 자기 사업을 대치하고있었다.

녀맹사업의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청진시녀맹일군들을 만나시여 녀맹사업방향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개별적일군들의 《지시》집행에 몰두하면서 기본을 놓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녀맹단체앞에 주신 과업을 관철하는데 사업중심을 둘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에서는 공장과 농촌에 나가 근로녀성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녀성들을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으로 적극 불러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일군들속에서 나타난 결함의 원인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가려보는 정치적인목이 없는데 있다고 보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며 특히 당보를 꼭 읽고 독보와 토론의 방법으로 당보학습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녀맹일군들이 자기의 사업방향을 옳게 정하고 모든 사업을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해나가는 정치적인목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녀맹조직들이 녀성들속에서 건국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건국사업에 조직동원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경성군안의 녀성들도 이 시기 연예선전대를 무어가지고 탄광과 림산마을에 나가 선전사업을 진행하고있었는데 그들이 무대에 올린 작품들은 《발같이노래》, 《녀성의 노래》 등의 노래들과 춤이였다. 그리고 연설내용은 주로 녀성들이 봉건을 박차고 떨쳐나오라는 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에서 연예선전대활동의 방향을 군에서 걸린 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정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잘 구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일군들을 만나시여 당면하게는 경제과업수행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요업공장에 연예선전대를 파견하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 요업공장의 로동자들이 여러가지 그릇을 많이 만들어놓았으나 로력부족으로 미처 포장을 하지 못하여 생산해놓은 그릇들을 상점들에 내보내지 못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에서 가두녀성들로 연예선전대를 조직해가지고 공장에 나가 선전활동도 벌리고 로력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로동자들의 열의도 높여주고 생산도 올리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연예선전대활동의 내용을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동단유희대를 지도하신 경험도 들려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선동연설은 어려운 말을 피하고 어디까지나 쉬운 말로 해야 하며 대상의 실정을 잘 결부하여 심금을 울릴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무대에 올릴 작품의 내용도 공장의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관심속에 연예선전대와 로력협조대는 요업공장에 나가 힘있는 선전활동으로 로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생산적양양으로 고무추동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조직에서 녀성들을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관개공사에 적극 불려일으키도록 하시였다.

당시 주남면에서는 논을 풀수 있는 넓은 땅과 어랑천의 물을 곁에 가지고있으면서도 그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여 벼농사를 짓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고장 농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여 주남벌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관개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시고 필요한 자금도 해결해주시였다.

그런데 처음 시작될 때와 달리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되자 공사는 거의 중단되다싶이 되였고 반동놈들의 파괴책동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 공사의 전망에 대해 신심을 잃고 동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로부터 건설자들과 농민들이 이 공사에 대한 신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일군들을 부르시여 건설자들과 농민들이 공사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도록 하시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녀맹에서는 덕거리물길공사장에 나가 연예선전대활동을 벌려 혁명가요를 불려주고 춤도 추고 원썬놈들의 책동을 분쇄하는 촌극도 만들어 공연함으로써 건설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지원물자들도 보내주어 건설자들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녀맹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공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시 잠잠했던 덕거리물길공사는 다시 활기를 띠고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되였다.

주남면관개공사는 주체38(1949)년 5월에 완공되였다.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는 이러한 실천투쟁속에서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새 조국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경성일대에서 활동하시면서 쌓으신 업적은 다음으로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건국사업의 힘있는 역량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하나의 단합된 역량으로 결속하는것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더우기 일부 일군들의 편협한 행동으로 하여 중소기업가, 상인, 수공업자들이 타도대상으로 규정되고 자기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당의 믿음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과 위구를 가지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일군들과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만나시는 기회에 중소기업가, 상인, 수공업자들의 기업활동에 대한 당의 시책에 대하여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군의 일군들에게 로동자, 농민, 지식인, 상인, 수공업자들은 물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까지 우리 혁명의 동력으로 규정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해설해주심으로써 각계각층 군중들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관점을 바로잡아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특히 숙소의 주인녀성이 자기의 남편이 양주업을 한것으로 하여 위축되어있는것을 헤아려보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당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 녀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소기업가, 상인, 수공업자들의 기업활동을 장려하실 뿐아니라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고계신다는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였다.

그 녀성을 통하여 김정숙동지의 말씀과 그가 받아안은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알게 된 사진업과 양복점을 경영하던 친척들 그리고 경성일대의 중소기업가, 상인, 수공업자들속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한 기업가는 중소기업가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으며 김정숙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자 자기 집에 초청까지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바쳐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양주업을 하는 기업가의 집을 찾으시고 그가 일제통치시기에 민족적량심과 지조를 지켜왔고 해방후에도 건국사업을 위하여 많은 돈을 기부한 사실을 치하하시면서 지난날에는 자기자신만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였다면 오늘에는 새 민주조선건설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나라살림살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인민들의 존경을 받는 새 민주조선의 기업가로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개인용기점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개인상공업자들이 인민들의 살림살이에 절실히 필요한 장독, 김치독과 같은 용기류들을 만들어 팔아주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인민을 위해 일을 잘해나가도록 고무해주시었다.

경성일대의 많은 기업가, 상인들은 자기들을 새 민주조선건설의 길에 당당히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적극 떨쳐나섰다.

김정숙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한 기업가는 애국적인 기업가로서 건국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으며 그후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받게 됨으로써 도안의 중산계층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성일대에서 활동하시던 나날 언제나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시면서 검박하게 생활하시었다.

인민들과 똑같이 수수한 무명옷차림을 하신 김정숙동지를 인민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숙소에 찾아와서도 미처 알아뵈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숙소에서 마당도 쓰시고 빨래도 하군 하시면서 보통 인민들과 다름없이 해오신 김정숙동지의 검박한 생활은 그이의 한없이 고결한 품모를 보여준것이였다.

처음에 김정숙동지를 모시기 위하여 일군들은 주인이 해방전에 양주업을 한 집을 내도록 하고 그 집 녀성을 친척집에 내보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인집녀인을 데려오도록 하시고 그 집식구들과 함께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 한 녀맹조직의 핵심녀성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다가 반동들의 책동으로 외동딸을 잃은 한 녀성의 불행에 대하여 들으시고 가슴아파하시며 그가 마음속상처를 하루빨리 가시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의 한없이 인자하고 소탈하신 품모로 하여 사람들은 매일같이 숙소에 찾아왔으며 자기들의 성의를 표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몇명 녀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 침구들을 준비해가지고 숙소에 찾아왔을 때 깨끗이 보관하였다가 돌아갈 때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가지고오신 모포만을 사용하시었다.

이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경성일대에서 활동하시는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과 한없이 소박한 인민적 품모를 보여주시었다.

3. 결 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함경북도 경성일대에서 활동하신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이 나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사의 투철한 자세와 립장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어머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나 정세가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자리를 뜨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것처럼 그리워하던 고향에도 가보지 못하시고 일가친척을 찾는것도 미루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회고하시였다.

참으로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한 한생이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생이였다.

김정숙동지처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 한없이 숭고한 인정미와 소탈한 인민적품성을 지니고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귀한 한생을 바친 그런 녀성혁명가는 이 세상에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김정숙동지를 그리며 항일의 녀성영웅, 백두산의 녀장군,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해마다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혁명가가 자기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 모범을 보여준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충실성의 귀감으로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실마리어 《호조미운동》, 수산합작사